

해방기 서정주의 글쓰기에 나타난 정치적 욕망

-『김좌진 장군전』과 『이승만 박사전』을 중심으로

남기혁 (군산대)

< 목 차 >

- | | |
|--------------------------------|--------------------------------|
| 1. 들어가는 말 | |
| 2. 해방기의 정치적 상황과 시인 서정주의 내면 풍경 | 4. 『이승만 박사전』의 집필 경위와 전기의 구성 방식 |
| 3. 『김좌진 장군전』의 집필 경위와 전기의 구성 방식 | 5. 맺음말: 전기문 쓰기에 함축된 정치적 의미 |

국문초록

본고는 『김좌진 장군전』과 『이승만 박사전』에 투영된 서정주의 정치적 욕망을 규명하고자 했다. 미당에게 전기문 쓰기는 친일 경력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탈출구였다. 구체적으로 김좌진 전기는 그의 아들 김두한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었고, 이승만 전기는 유력 정치인인 이승만을 우상화하여 정치적 입지를 공고화하려는 것이었다. 해방기의 혼란 속에서 반공 이념과 민족(주의) 노선을 선택한 미당은 전기 집필을 통해 민족에 재결속되어 정치적 단죄나 고립에서 벗어나려 했다.

한편 인물의 일대기 형식을 따르는 두 전기는 몇몇의 차이를 드러낸다.

우선 김좌진 전기는 전대 영웅소설의 구성이나 문체를 따르는 까닭에 흥미 본위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이승만 전기는 인물의 근대적 성격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자는 가족과 주변 인물의 구수와 신문 보도에 근거 하되 작가적 상상력이 개입될 여지가 컸지만, 후자는 생존인물 자신의 구술 과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상상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미당의 전기 집필은 해방기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 전기 집필 그 자체가 현실 정치와 연계된 정치적 프로젝트였다. 서정주의 입장에서, 이는 문단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다만 그가 민족 (주의)에 접합되는 체험은 그다지 수미일관한 것은 아니었다. 친일 경험에 대한 자의식을 떨쳐내야 한다는 강박감이나 반공 전사의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불안과 공포가 사로잡혔다. 한국 전쟁 전후에 서정주가 보여 준 분열증적 증세는 그가 속하고 싶었던 민족의 정체성, 반공 이념의 정체성이 그리 견고한 것은 아니었음을 역설해 준다.

핵심어: 미당 서정주, 해방기, 『김좌진 장군전』, 『이승만 박사전』, 전기, 정치적 욕망

1. 들어가는 말

『미당 서정주 전집』(은행나무)이 최근(2017년)에 전 20권 분량으로 완간되었다. 이 전집은 단행본이나 전집으로 간행된 기존 텍스트들을 근간으로 편집된 까닭에 일부 시 텍스트와 산문 텍스트가 누락된 아쉬움이 있지만, 미당의 삶과 문학의 전모를 헤아리는 데 큰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집 구성 방식¹⁾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당의 문필 활동은 시 창

1) 총 20권으로 간행된 해당 전집은 시(전5권), 자서전(전2권), 산문(전4

작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시론과 문학론, 서사문학과 수필 등 다양한 산문 문학 영역에 폭넓게 걸쳐 있다.

기존의 미당 연구는 대체로 시 텍스트, 좀 더 확대하면 시론이나 시평에 대한 연구에 치중해 있는 편이다. 이제 산문 영역의 글쓰기 전반에 대한 연구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당의 글쓰기에 만연해 있는 서사(敍事)의 충동, 혹은 이야기하기의 욕망은 주목할 만하다. 자아 서사와 관련된 것²⁾이든 실존 인물이나 허구적 인물에 대한 서사와 관련된 것 이든, 혹은 옛이야기의 변안이든 간에 이야기하기(혹은 서사적인 글쓰기)를 통해 독자와 소통하려는 미당의 욕망은 매우 본원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미당은 이야기하기를 통해 미당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거나 숨겨진 내적 욕망을 드러내면서 특정 시기에 자신이 지향했던 인생관이나 세계관도 함께 펼쳐내려는 충동이 매우 강한 편이었다.³⁾

본고는 미당의 서사적 글쓰기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것으로 평가될 만한 전기문에 주목하려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당은 두 편의 전기, 즉 『김좌진 장군전』(이하 ‘김좌진 전기’로 통칭함)과 『이승만 박사전』(이하 ‘이승만 전기’로 통칭함)을 남긴 바 있다. 이 전기물들은 그 대상이 역사상 실존 인물, 그것도 당대 정치 현실에 직접 영향을 끼쳤던 근대적 ‘영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김좌진 전기의 경우, 전기 대상자의 사후 15년 내외에 불과한 시기에 집필되었으며, 해방기에 생존하고 있던 그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이 전기 집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승만 전기의 경우는 더욱 특수하다. 그는 해방기의 현실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현실 정치인으로서

권), 시론(전2권), 방랑기(전2권), 옛이야기(전2권), 소설·희곡(전1권), 전기·번역(전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문학적 자서전』(전집 7권)에 수록된 글이나 유년기 질마재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산문시로 형상화한 시집 『질마재 신화』(1975)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3) 삼국유사 속 설화들이 시집 『신라초』(1961)의 창작 원천이 되고 있는 점, 어린 시절 고향에서 보고 들은 여러 설화나 이야기를 『질마재 신화』를 통해 훌륭한 이야기꾼의 솜씨로 펼쳐낸 점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당의 전기 집필과 간행(더 나아가 배포 중단)에 직접 개입했다. 전기 대상 인물 혹은 주변 인물이 전기 작가의 집필 행위와 내용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과연 미당이 주체적인 전기 작가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까에 대해 의문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특수성에 대한 검토가 미당의 전기 집필 행위를 해석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전기란 한 인물의 행적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글쓰기 영역은 아니다. 특히 문학 영역에서 전기를 바라볼 경우 절대적인 사실성 혹은 객관성에 대한 요구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전기 작가의 주관적 시각과 해석이 어떤 방식으로든 인물의 해석과 허구의 서사화에 개입할 수밖에 없고, 마땅히 그런 전기만이 문학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게다가 전기 집필 당시 미당은 두 인물의 전체적인 삶의 이력과 그 면모를 온전하게 파악하고 그려낼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인물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전기 대상 인물 혹은 그 주변 인물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여 있어 글쓰기의 자유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런 까닭에 전기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는 물론이고 어쩌면 그 인물들을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의 지평으로 올려놓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미당이 이처럼 전기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필에 나선 까닭은 무엇인가. 또 전기 집필 행위는 미당 자신의 실존적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전기 집필에 투사되었을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이나 정치적 욕망은 어떠한가.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뒤에서 상론하겠거니와, 미당은 생계의 방편이란 변명으로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⁴⁾ 하지만 이런 변명에 안주하면 미당의 서사 충동 혹은 글쓰기 욕망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본고는 미당의 전기 집필 과정에 노정된 기록의 사실성이나 진실성 문제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되, 집필자의 정치적이고 실존적인 계기가 근대적 ‘영웅’의 삶과 행적을 서사화하는 글쓰기에 어떤 방식으로 투영되는가를 밝히려고 한다. 이는 70년 가까운

4)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 7-문학적 자서전』, 은행나무, 2016. 이하 『전집 7』로 표기한다.

미당의 글쓰기 전체를 조망하는 비판적 준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는 『김좌진 장군전』(을유문화사, 1948)과 『이승만 박사전』(삼팔사, 1949)에 대한 기본적인 서지 검토와 텍스트 분석을 논의의 중심으로 삼고자 한다.⁶⁾ 특히 이 전기들이 해방기의 혼탁한 정치 상황에서 산출되었음에 주목하여 전기 집필의 내밀한 정황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제 잔재 청산과 새로운 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이중의 시대적 과제에 사로잡혀 상이한 정치 이념과 노선들이 백가쟁명하던 해방기의 혼란 속에서, 미당이 하필 왜 김좌진과 이승만이라는 두 명의 문제적 인물을 전기의 대상으로 삼아야 했는가를 밝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당의 전기 집필이 해방기에서의 정치적 선택, 더 나아가 이념적 실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그의 문학적 이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유추해 볼 것이다.

2. 해방기의 정치적 상황과 시인 서정주의 내면 풍경

미당의 삶과 문학을 평가할 때 그의 친일 행위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문제 요소로 간주된다.⁷⁾ 그의 친일시 창작은 특정 시기의 예외적인 조건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강요된 행위였다는 변명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다. 미당이 친일 경력에 대한 변명 혹은 반성⁸⁾

5) 미당이 집필한 이승만 전기는 삼팔사(1949)라는 출판사에서 간행 예정되었으나, 우남의 명에 의해 책을 몰수 처분 당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이승만 전기는 그의 유자인 이인수 교수와의 합의를 거쳐 미당이 1994년 9월에 재간행한 『우남 이승만전』(화산문화기획)과 최근 편찬된 미당 전집의 제19권에 수록된 『우남 이승만전』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이승만 전기’라고 통칭한다.

6) 본고에서는 앞에 언급한 전집의 제19권 『전기』(은행나무, 2017)에 수록된 『김좌진 장군전』과 『우남 이승만전』을 연구 텍스트로 삼으며, 이하 『전집 19』로 표기한다.

7) 서정주의 친일시에 관한 연구로는 김재용,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으로서의 친일문학』, 『실천문학』66, 2002; 남기혁, 『서정주의 동양 인식과 친일의 논리』, 『국제어문』37, 국제어문학회, 2006 참조.

을 여러 차례 제출한 것도, 친일 행위에 내재된 자기모순을 고백하지 않고는 새로운 글쓰기가 불가능하다는 자의식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미당이 맞이했던 해방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해방의 개벽한 현실을 바라보는 미당의 내면풍경은 어떠했을까. 미당 자서전의 다음 대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5년 8월 15일 오후 한 시쯤 나는 내 친구 미사(인용자 주: 배상기라는 인물을 가리킴)와 함께 서울역으로 몰려가는 태극기 든 인파 속에 끼어 걸어가고 있었다. (중략) 나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대비치 못한 사람이라 선전히 거기 끼어들 배포가 생기지 않았으나 미사가 “우리도 한번 가보세”하고 앞장서서 끄는 바람에 한 개의 덤인 양 거기 휩싸여 갔다. 서울역 앞 광장에 다다라 보니 단 한 사람의 미군도 소군도 거기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은 끊임없이 소리를 합쳐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손에 든 태극기들을 추켜들고 만세만을 무르고 있었다. 그런 소리는 또 내가 이 세상에 생겨나서 처음으로 들어 보는 음색이었다. 그것은 그냥 기쁨이나 반가움의 소리가 아니라 아직도 그 족쇄와 멍에의 부분품들을 다리 와 목에서 다 끊지도 못한 채 탈옥해 나온 사람들이 아직도 탈출해 가며 응원을 청해 외치고 있는 소리처럼만 들렸다. 그래 나도 거기에 소리를 끼어 기껏 그걸 연거푸 불러 보니 내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여기서 나와 내 동참자들의 같은 음색을 느끼며 많이 울었고 또 “참 일은 묘하게도 되기는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난생 처음으로 비로소 하기 시작했다.⁹⁾

예기치 않은 해방의 도래와 그 감격을 그려낸 장면이다. 믿기 어려운 해방의 소식을 접한 군중들이 광장으로 몰려나와 만세를 부르는 상황은 예외적·역사적 사건인 해방이 민족의 앞날에 가져올 정치적 의미를 아느냐의 여

8) 서정주, 『창피한 이야기들』, 『전집 7』(148~162면); 『일정 말기와 나의 친일시』, 『신동아』, 1992. 4.

9) 『전집 7』, 164~165면.

부와는 상관없이 없다. 군중들은 과거의 질곡(‘족쇄와 멍에’)을 미처 다 떨쳐내지 못한 채 갑작스레 맞이한 해방의 감격에 사로잡혔고, 그 감격을 ‘만세’라는 외침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천지가 개벽하는 이 순간, 일제 강점 하에서 저마다 고립된 개인들로 머물러 있던 군중들은 민족이란 집단의 일원임을 느끼며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

미당 역시 이런 역사적 체험의 한복판에 휩쓸렸다. 그 자신의 말처럼 해방의 순간을 예상하고 대비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울역 광장에서 미당이 느꼈던 환희나 공동체적 체험은 민족의 일원으로서 그 자체로 진실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 환희가 가라앉아 해방의 정치적 의미를 되새기기 시작하는 지점일 것이다. 윗글에서 미당은 이미 해방의 환희를 만끽하던 그 현장에서 ‘참 일은 묘하게도 되기는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한다. 이 고백은 뜻하지 않게 도래한 해방을 맞이하여 역사의 아이러니를 실감하던 미당에게 이미 생존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암시한다. 그 감각은 해방 정국에서 ‘나라 만들기’ 행위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점차 참여해진다. 생존의 감각은 실존의 감각이자, 정치의 감각이다. 이런 감각의 중심에는 ‘친일’의 경력에 대한 예민한 자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미당이 서울역의 군중들에 대해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는 자의식, 즉 집단 속에서 스스로를 타자로 인식하게 하는 마음의 풍경 말이다.

해방의 소식이 가져다 준 이 자의식 문제는 미당에게 일종의 원죄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는 시인 오장환 때문에 맞닥뜨린 ‘죄와 벌’의 문제(『전집 7』, 167면)에 대한 미당의 언급에서 확인된다. 주지하듯이 오장환은 미당과 함께 ‘시인부락’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절친한 문우이다. 병상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오장환은 이후 좌익으로 전향하여 거친 저항의 언어로 해방공간을 가로질러 갔다. 월북과 소련 기행까지 이어질 오장환의 이 당시 좌익 활동은 미당에게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 때문에 절친한 벗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두 쌍둥이 아이처럼 늘 맞붙어 다니며 지내던”(『전집 7』, 167면) 벗이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하면서 미당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고 심지어 ‘친일파’라는 조롱을 일삼았던 정황과 관련이 있다. 미당의 입장에서 오장환의 행적은 이념 선택의 당부당 이전에 인간적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미당은 오장환에 대한 적대적 감정 이전에 먼저 ‘자격지심’(『전집 7』, 168면)에 사로잡히게 되었다.¹⁰⁾ 친일의 과오에 대한 자괴감과 부끄러움 말이다.

해방기의 미당은 친일 행위에 대한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자기고발이나 윤리적 성찰까지 확장시키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친일 행적을 가려 줄 현실 회피의 방편이 필요했다. 민족 공동체의 외부로 밀려나 영원히 타자로 남겨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낳은 미당의 회피 전략은 해방기가 좌우의 극심한 이념 대립과 정치적 혼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선택가능하고 실현가능했다. 미당은 일제 잔재 청산과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시대적 과제를 둘러싼 세력 대결의 과정에서, 특정 정파나 정치 조직에 스스로 귀속되어 정치 운동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자기 내부에서 타자성의 계기를 지우고 문학과 삶의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 했다. 구체적으로 우파 민족주의 혹은 반공주의를 선택하고 그 진영의 핵심 단체나 현실 정치인들을 향해 무한 질주하는 것이 미당의 정치적, 실존적 선택이었던 셈이다.

문단의 세력 재편이란 측면에서 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오장환이 가담한 ‘조선문학가동맹’이 일제 잔재 청산을 표방¹¹⁾했던 반면 미당은 줄곧 목적문학을 배격하고 순수문학론을 견지했다. 미당이 우파 민족주의 노선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친일 행위의 반민족성을 고려하면 미당이 자신을 보호할 명분으로 ‘민족(주의)’을 선택한 일은 아이러니한

10) 친일 문제에서 비롯된 미당의 좌익 콤플렉스는 한동안 지속되었으며, 이는 친일 경력에 대한 자의식과 결부되어 한국전쟁 발발을 전후로 한 시기에 극단적인 피해의식과 정신분열로까지 나타났다.『전집 7』, 188-189면 및 249면 참조.

11) 오장환과 서정주의 해방기 문학적 실천에 대한 비교는 허유희, 『해방 이후의 서정주 1945~1950』, 『민족문학사연구』36, 2008; 남기혁, 『해방기 시에 나타난 윤리의식과 국가의 문제』, 『어문론총』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참조.

일이지만, 해방기에는 사회주의 이념과 진영의 대척된 위치에서 반공 이념을 내세웠던 상당수의 정치 세력들이 진심이든 아니면 허울뿐이든 ‘민족(주의)’을 정치적 결집 단위로 내세워 정치적 정체성을 부각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로 삼았던 것이 현실이다. 미당 역시 ‘민족(주의)’라는 이념의 일관성이나 정합성보다 특정 이념에 대한 대타의식으로 무장한 진영에 가담함으로써 자신의 과거 반민족 행위를 은폐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실제로 미당은 해방기에 반공 노선과 그 실천 운동에 참여했던 사실에 대해 여러 차례 자부심을 피력한 바 있다.¹²⁾ 이런 분열과 착종이 중첩된 정치적 노선 선택에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자기반성이 부재한다거나 내면의 진정성이 부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는 ‘민족’이라는 대(大) 자아 혹은 초자아에 접합됨으로써 정치적 고립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민족주의라는 이념의 실천에 참여한다는 은밀한 기쁨을 누렸을 법하다. 그 기쁨은 사실 친일의 원죄를 씻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초한 것이지만 말이다.

미당이 김좌진과 이승만이라는 민족적 영웅과 만나는 계기, 그들에 대한 전기 집필에 나서는 경위 역시 이런 맥락과 관련이 깊다. 그는 타인의 가치 평가적 시선이나 논쟁 자체를 거부하고 존재 그 자체만으로 민족과 국가라는 이념의 광휘를 내뿜었던 ‘영웅’에 대한 서사화에 나섰다. 미당은 이를 통해 해방 전의 반민족 행위를 향한 비판적 시선을 차단하고 스스로 민족 이념의 전사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었다. 미당 자신이 시인으로서 쌓아왔던 명망에 덧붙여, 천부적 이야기꾼으로서 지녔던 서사 능력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은 정치적 혼란기에 한 문인이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는 능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물론 이런 개인적인 욕망이 당대의 정치 지형도, 더 나아가 이념 대립의 기제에 의해 추동된 것이고, 전기 집필 그 자체가 개인 이전에 시대적 기획의 소산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12) 『전집 7』, 172-3면 참조. 서정주는 이때의 정황을 시 「반공운동과 밥」(『전집 7』, 303면)을 통해 기록하기도 했다.

3. 『김좌진 장군전』의 집필 경위와 전기의 구성 방식

3.1 집필의 계기와 과정, 그 주변 상황

미당이 '민족'이란 상상의 공동체에 다시 접속되는 실질적인 계기는 시인 김광주에 의해 마련되었다. 1930년대에 시인으로 등단했던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백범 김구와 인연을 맺었다. 그런 김광주와의 만남을 통해 미당은 백범의 비서 장준하를 비롯한 민족주의 계열의 청년운동 관계자들도 알게 되었고, 김동리·이한직 등과 함께 한국청년회에 가담하여 활동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반공노선의 정치 폭력단으로 맹위를 떨치던, 대한민주청년동맹의 위원장 김두한과 연결된다.

방학에 서울로 올라오자 나는 또 우연처럼 종로의 역사 김두한의 일을 봐 주고 학교 연료(인용자 주: 급료(給料)의 오기로 보임) 없는 한국의 긴 겨울방학 동안의 호구의 길을 트게 되었다. (중략) 김두한은 이때 지금의 내무부 자리에 있는 '대한민주청년동맹'이라는 큰 간판을 걸고 서울 시내의 힘깨나 쓰는 반공청년들을 두루 모아 그 위원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누구한테 들은 인연으로였는지, 내게 그의 무서운 부하 가운데 하나를 가까이 보내온 것이다. (중략) 김두한의 동맹 간부가 나를 찾은 이유는 김두한의 아버지인 김좌진 장군의 전기를 쓰라는 것이었다.

가져온 자료들을 읽고 들어 보고, 나는 이 선열의 생애에 매력을 느껴 곧 승낙하고 거기 몰입하게 되었다. 특히 그의 생애가 내게 매력을 준 것은 의지와 육체의 월등한 힘과 아울러 민족을 위한 그의 성찰력에 하나의 오진(誤診)도 없는 데 있었다.¹³⁾

미당은 해방 직후 혼란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그런 미당에게 김좌진 전기의 집필은 '호구의 길'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것은

13) 『전집 7』, 183~184면.

미당이 ‘반공청년’ 단체, 즉 반공 이념을 내세워 특정의 우파 민족주의자들을 비호하거나 불법적인 완력까지 사용하는 폭력 집단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의탁하게 된 것을 의미했다. 이는 이후 미당의 문학 및 정치 노선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다면 미당은 김좌진의 어떤 면모에 매혹되었는가? 윗글에 따르면 김좌진은 “의지와 육체의 월등한 힘”과 “민족을 위한” 성찰력의 소유자였다. 이 힘은 미당 자신이 목격한 김두한의 압도적인 ‘힘’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미당은 그 힘에 의지하여 비로소 자신도 ‘새로운 힘’(『전집 7』, 184면)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있거니와, 그 힘은 미당이 친일파라는 수군거림과 조롱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기도 했다. ‘의지와 육체의 월등한 힘’을 지닌 존재의 그늘에 서게 됨으로써 혼란한 해방 정국에서 닦쳐온 정체성의 균열과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날 방안을 얻은 것이다. 게다가 그 ‘힘’은 반공이란 이념의 광휘를 내뿜던 존재들과 결속되는 통로이자 미당 자신이 그토록 부정했던 집단적 주제로서 민족의 일원으로 재결속되어 견고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했다.

실제로 미당의 김좌진 전기 집필은 해방 공간의 김좌진 신화화 작업과 연결되어 있었다.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좌진의 업적은 독립운동사에서 기념비적인 것이다. 다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하필 김좌진이란 인물이 해방공간에서 호명되고 특별히 기념사업회가 조직되어 개인에 대한 의식적인 신화화 작업¹⁴⁾까지 이루어진 것은 해방기의 특수한 현실 정치 논리가 작동한 결과이다. 우선 김좌진의 서자임을 자처한 김두한은 자신의 뿌리 찾기의 일환으로 김좌진을 소환할 필요가 있었다. 미당은 이런 김두한이 제공

14) 실제로 김두한은 해방기에 일련의 추모 사업을 주관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추도회 준비위원회 조직(1946년 9월)을 조직하고, 국제극장에서 추도회를 개최(1947년 1월 16일)하였다. 이 추도회에는 임시정부의 주요 멤버인 김구 조소앙 김상덕 이범석 등이 참석했으며, 개식사는 유진산, 약력 보고는 김상덕이 맡았고, 김구의 추도사와 김두한의 답사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성우, 『만주 항일무장투쟁의 신화-김좌진』, 역사공간, 2011, 190~194면 참조.

한 자료¹⁵⁾와 김좌진의 유족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구술에 의존하여 전기의 집필에 나선 것이다. 김좌진 전기에 김두한이 김좌진의 소생임을 암시하는 장면이 은밀하게 삽입된 것도 이런 맥락과 관련이 깊다.¹⁶⁾ 한편 김두한이 김좌진의 죽음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고 반공노선을 선택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는 당대 우파 민족주의 진영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독립운동 세 진영을 아우르려 했던 백범 김구 진영,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이범석, 유진산 같은 해방기의 현실 정치인들이 김두한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확실해 보인다. 특히 김좌진 전기에 그려진 것처럼 김좌진이 ‘좌익 소아병자의 밀사’에게 시해를 당했다는 정보는 김두한이 반공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미당의 김좌진 전기 집필은 이런 정치적 동기나 기획들에 맞닿아 있었던 것이다.

3.2 신화화의 욕망과 설화적인 서사 구성 방법

김좌진 전기는 보통의 전기가 그러하듯 연대기적 서술을 따른다. 소년 시절을 다룬 제1편, 청년 시절을 다룬 제2편, 만주에서의 활동상을 다룬 제3편으로 전기가 구성된 것도 연대기적 서술을 따른 결과이다. 연대기적 서술의 각 단계에서 구성되는 세부 정보들은 대체로 특정한 인물의 회상 및 구수에 의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기의 ‘제1편 소년’은 전기 집필 당시 생존해 있던 김좌진 노모의 회상, ‘제2편 청년’은 김좌진의 사촌 김해진의 회상, ‘제3편 만주’는 청산리 전투에 김좌진과 함께 참여한 이범석의 회상¹⁷⁾이 전기 서술

15) 주로 김좌진 시해사건과 관련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들을 가리킨다.

16) 『전집 19』, 173~179면. 김좌진과 김계월의 만남과 이별을 다룬 이 장면은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구수(口授)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작가적 상상과 허구화를 동원하여 시중의 풍문을 가공함으로써, 김두한이 김좌진의 소생임을 암시하기 위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17) 이범석은 신흥무관학교 교관이었으나 대한군정서에 합류하여 김좌진의 독립군 양성을 도와주었고 청산리전투 당시 김좌진 휘하에서 연성대장으로 전투에 참여했다. 김좌진 전기 제3편의 2장과 3장은 이범석의 구수에 기초한 것이다. 이범석이 김좌진 수하에서 그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

의 기초 자료를 이루고 있다. 이런 바탕 위에서 김좌진 전기는 각종 사료나 언론 보도, 역사 서술 등을 간간히 인용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엮어나간다.

하지만 한 인물의 생애를 총체적, 입체적으로 조명하기에는 이런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연대기적 서술을 감당할 만큼 그 내용도 충분하지 않았다. 독립운동사 연구가 미처 활성화되지 않았고 김좌진의 독립운동 행적에 대한 기초 자료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던 해방기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운동사의 문제적 인물인 한 영웅의 생애를 전기로 재구성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다.

미당 역시 열악한 상황에서 전기 집필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전기 서문에서 미당은 향후 생겨날 완전한 전기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감, 특히 김좌진의 생애를 증언한 가족과 친지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구술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전기 집필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다.¹⁸⁾ 김좌진의 모친이 이 당시 90세 전후의 고령¹⁹⁾이었음을 고려하면 그 절박감은 매우 컸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 혹은 주변 인물의 기억에 의존하는 집필 상황은 오히려 미당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중간 간부로 그려지는 장면, 또 도구목 시절 김좌진이 자신을 찾아온 이범석을 위해 못물가에서 낚시를 하고 양피 외투를 팔아 군마의 식량을 준비해 준 일화 등은 이범석의 구수가 아니면 재현되기 힘든 내용들이다.

- 18) “본래 나는 소설가도 전기 작가도 아니요 미소한 일개 시졸(詩卒)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람하게도 김좌진 장군의 전기를 집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장군의 유념(遺念)을 구원히 빛나게 할뿐더러 앞으로 반드시 생겨야 할 걸작 김좌진전을 위한 한 권의 집중적인 소재나마 제공해 보자는 미충(微衷)에서이다. 그의 육친과 친지의 몇 분들이 아직도 향세(享世)하고 있는 시방 당장에 이 일이나마 해 두지 못하면, 뒤에 많은 곤란이 있을 것임을 예상한 까닭이다.”(『전집 19』, 13면)
- 19) 김좌진 모친의 구수 정황은 전기문 곳곳에 나타난다. 가령 “지금도 그의 구십 모친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전집 19』, 18면)이나, “갈기면 누가 아파줄 줄 아나, 손바닥만 아프지”하였다는 이야기도 인제는 늙은 신 자당의 한 가닥 구슬픈 추억이 되었을 뿐이다.”(29면)는 장면이 그 예이다.

상상력을 작동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이 상상력의 자유는 김좌진 전기에 나타나는 설화적인 문체나 서사 전개 방식으로 연결되었다.

우선 김좌진 장군전의 전반부는 전통 영웅 설화 혹은 영웅 소설에서 흔히 접하는 모티프들이 나타나며, 서사의 구성 역시 전통적인 서사체가 활용되고 있다. 미당은 자신과 당대 독자들에게 친숙한 전통 영웅 서사체를 차용하여 전기 대상인 김좌진의 유년 시절을 신화 혹은 영웅 서사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그것처럼 그려내었다. 이 전기의 제1장 소년 편에서 소개된 김좌진의 출생담이 애기 장수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또한 전기 대상의 비범한 출생을 부각하면서도 아버지의 죽음과 국가 패망의 현실을 영웅에게 닥쳐 온 비운으로 풀어낸 점도 주목된다. 이런 서사의 짜임새는 비범한 인물의 출생과 그에게 닥친 위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전대 영웅 설화의 서사 구성 원리를 따른 결과로 보인다.²⁰⁾

장군이 탄생한 기축년에도 장군의 집은, 갈피뿐이 아니라 온 흥성 고을 안에서도 유수한 세력가였다. 당시 형규 씨는 고종조의 참봉으로서, 갈피에는 80여 칸의 널따란 기와집에 30여 명의 남녀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중략)

“낱아 놓으니 애기가 어찌나 큰지요. 모두 보는 사람마다, 인제 장수가 될 거라고 했지요.”

지금도 그의 모친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장수를 장수로서 받아들이기 만큼 나랏일은 그때 갈피와 같이 안온하지는 않았다.²¹⁾

인물의 비범한 출생을 강조하는 이런 장면은 뒤이어 출생 당시의 불행한

20) 김좌진 장군전에서 서술자는 고전소설에서 자주 접하는 ‘차설(且說)’이란 말로 장면을 전환하곤 한다. 그만큼 미당은 자신에게 익숙한 전통 서사체를 전기의 서사 전개 원리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고전 서사체의 진술 방식은 뒤에서 살펴볼 이승만 전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21) 『전집 19』, 18면.

시대 상황과 가계의 현실에 대한 서술 등과 결합하면서 “호랑이같이 무서운 장수”(『전집 19』, 22면)로 성장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한편 서사가 본격화되면서 미당은 주로 일화 중심의 구성을 활용하여 소년기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김좌진의 비범한 면모를 잇달아 조명한다. 훗날 김좌진이 가노(家奴)를 해방시키고 땅을 나누어 준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소년 김좌진과 ‘춘봉이네’의 약속 장면, 김좌진 부친이 네 살짜리 아들에게 “역적과 매국노를 무찌르는 불호랑이 같은 장수”(22면)가 되라는 유언을 남기는 장면, 서당 동학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병정놀이에 몰두하는 장면, 병정놀이를 하다 마주친 의병들에게 “너도 크거든 인제 의병이나 되어라”(66면)는 말을 듣는 장면 등이 좋은 예이다. 이런 일화들은 훗날 김좌진 사망 직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소개된 김좌진 일화, 그리고 김좌진 유족의 구술에 전거를 둔 서술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장면들은 순전한 허구나 창작이 아니라 일정한 사실성, 기록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화 중심의 구성은 인물의 비범성을 강조하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서사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서사 전략의 밑바탕에는 인물의 비범한 힘과 능력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자리 잡고 있다. 사실성 혹은 실제성을 초과하는 이상화, 신화화 전략이 그것이다. 이런 전략은 김좌진 전기의 서사적 배치와 구성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 대상 인물에 대한 이상화, 신화화 전략은 청년기의 김좌진을 그려내는 ‘제2편 청년’에서도 계속된다.

제2편의 제1장 첫머리에서 작자는 “여기에서 나는 잠깐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이라 하면 요즘 사람들은 적어도 스무 살 넘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요, 또 사실 그만큼 한 나이는 돼야만 청년으로서의 온갖 구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69면)고 전제하면서, ‘여러 목격자의 기억’에 기초한 진술임을 들어 “열여섯 살부터를 그의 청년 시대로 잡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좌진이 어린 나이에 이미 자가의 노비를 해방시키고, ‘호명학교’의 설립자가 되는 등 “한 개의 적지 않은 혁명을 일으키기까지도”(78면)하는 숙성하고 장대한 모습을 보였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 전기 제2편의 제2장과 제3장은 김좌진이 가노를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 제4장에서 제6장은 호명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 제8장과 제9장은 경술국치를 전후로 상경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운동의 뜻을 키워가다 끝내 서대문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 마지막으로 제9장과 제10장은 출옥 후 활동 근거지를 만주 지역으로 옮기기까지 준비 활동 등을 차례로 서술하고 있다.

김좌진 장군전의 설화성, 영웅성은 만주에서의 독립 운동을 다룬 ‘제3편 만주에서’를 통해서도 지속된다. ‘제3편’은 이 전기의 핵심에 해당하는 시기를 다루는 부분이고, 또한 인물의 실제 행적에 부합하는 풍부한 내용을 갖추어야 마땅하다. 사실성과 기록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3편’ 자체의 성립뿐 아니라 전기 집필의 동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좌진 장군전의 제3편은 제1장과 제2장에 비해 그 분량이 현저하게 축소되었고, 김좌진의 활동상 역시 매우 간결하고 요약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김좌진의 독립 투쟁 활동은 전기 집필 당시의 시점에서 불과 20~30여 년 전의 일이었다. 또한 그의 국외 활동이 국내에 제대로 알려질 수 없었던 일제강점기의 언론 상황을 고려하면 전기 집필자가 느꼈을 고충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게다가 미당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김좌진의 독립운동 활동을 기술할 만큼 충분한 기록이나 정보를 제공 받지 못했다. 그 당시 독립운동사에 대한 체계적 진술이 존재했을 까닭이 없고, 김좌진의 실제 활동이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 역시 1930년대 초반의 일부 신문 기사를 제외하면 풍문 수준을 뛰어넘을 만한 확실한 정보도 없었다. 게다가 일제 하 독립운동과 관련한 민감한 역사적 사실을 두고 작가가 주관적 상상이나 허구적 서사 능력을 동원하여 임의로 사실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저어했을 가능성도 떠올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 작가가 취할 수 있는 서사의 전략은 제한적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나열하되, 인물의 실제 사적 중에서 일부 불리한 내용은 은폐하고 특정 관점에서 사적들을 윤색하여 기록하는 것 정도가 동원 가능한 서사 전략이었던 셈이다.

미당은 자료의 공백을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인물 이범석의 회상을 통해 돌파하려 했다. 흥범도 일파와 힘을 합쳐 청산리 전투에 나서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제3편의 제1장, 청산리 전투에서의 승리 과정을 다룬 제2장, 일본군에 쫓겨 숨어 지내던 ‘도목구 시절’의 가난한 생활상을 다룬 제3장, 귀일당 운동과 한중 협작을 위한 노력, 분열된 독립 운동 단체를 구합하려고 애썼던 시절을 다룬 제4장 등은 이범석의 회상과 기타 신문 기사와 풍문에 의존하여 서술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산리 전투의 공적에 대한 극적인 과장과 신화화가 작동한다. 여기에는 해방기의 정치적 논리가 함께 개입한다. 주지하듯이 이범석은 해방 공간의 정국에서 특정한 정파를 대변하던 현실 정치인이었다. 그러니까 이범석의 청산리 전투는 그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화하는 것이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청산리 전투에 대한 신화화가 작동할 여지가 컸을 것이다. 가령 흥범도와 김좌진이 함께 일군 청산리 전투의 공적을 주로 김좌진의 입장에서 서술한다든지, 전투의 공적을 실제보다 과장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좌진 장군전에서는 청산리 전투의 전공을 “독립군은 열두 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일본군은 실로 1천 6백여 명의 일개 사단이 전멸하였던 것”으로서, 이 청산리 싸움을 “3백 수십 년전의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처음으로 일본에 타격을 준 집단적이며 본격적인 전투”²²⁾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기록은 전적으로 북로군정서에서 김좌진의 휘하에 있던 이범석의 무용담에 따른 진술이다.

하지만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²³⁾,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전사자는 최대 800명을 넘을 수 없으며 이 전과의 상당 부분은 김좌진 부대가 아니라 흥범도 부대의 몫이며, 양측은 계획적인 연합작전이 없이 우연히 같은 전투에 참여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전과는 이범석에 의해 부풀려져 상해의 독립신문에 사살자 1200여명 규모의 전과로 보고되었고, 해방 후 이범석에 의해

22) 『전집 19』, 201면.

23) 박창욱, 『김좌진 장군의 신화를 깬다』, 『역사비평』24, 역사비평사, 1994, 185~187면 참조.

그 규모가 3000여명으로까지 부풀려진다. 어찌되었든 미당의 김좌진 장군전에 기록된 전과는 실제의 역사적 사실을 상당 부분 과장해서 김좌진의 영웅성을 부각하고, 이것을 이범석은 해방기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던 정황이 뚜렷하다.

이와 같이 특정 인물의 회상에 의존하다 보니, 제3편의 서술은 그 실제 내용이 매우 빈약한 편이다. 김좌진이 암살을 당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제3편의 제5장’은 특히 그러하다. 제5장에서 미당은 청산리 전투 이후 사분오열되었던 무장 독립운동 세력들이 1929년을 즈음하여 재결집하는 상황을 단순히 김좌진 개인에 대한 배반과 사죄의 과정으로 약술한다. 이 첫 단락을 이어 다음과 같은 기술이 나타난다.

장군이 이때부터 정미업을 하였다면 제군은 곧이들겠는가? 곧이 들건 안 들건, 장군은 정말로 그걸 경영하였다. 길림 중동산역 부근에다 정미소를 벌리고, 자기 손수 뽕안 겨먼지를 쓰고 다니며, 풍풍거리는 정미기를 통해 알곡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헤아려 보았고, 전대들 들고 온 여인네에게 마장이가 그걸 되주는 것도 어떤 때는 스스로 감독하였다. (중략)

그 한 집 한 집이 살아 숨 귀고, 먹고, 자고, 움직이는 일거일동까지 장군과는 유기적 관계가 있는 듯이 보이는, 이 나날이 불어 가는 조선 사람들의 마을- 이 마을 사람들은 물론 그 전부가 김 장군의 같은 겨례요 동지요 한족 연합회의 회원인 것이었다.²⁴⁾

이러한 서술은 사실에 얼마나 부합하는 것일까? 이 당시 김좌진은 만주 지역의 일반 대중(혹은 농민) 세력과 상당히 괴리되어 정치적으로 고립된 처지였다. 무장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만주로 이주한 우리 농민들에게 무리한 방법으로 군자금을 걷어 들이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독립 운동 진영의 분열에 김좌진 본인도

24) 『전집 19』, 215~217면.

일정한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무정부주의자들과의 세력 규합 과정에서 사회주의 노선의 활동가들과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다고 한다.²⁵⁾ 하지만 미당의 전기문에서 이런 사정이 상세히 그려지지는 않는다. 주로 김좌진의 노력에 따라 만주와 시베리아 일대의 조선 사람들이 총망라되어 한족총연합회가 결성되고, 이념적 차이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회원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인격적 감화로 인해 그 동안 흩어졌던 동지들이 재차 결집했다는 사실만을 간략하게 보고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김좌진의 행적을 영웅화하여 특정 이념의 척도로 재단하고 윤색하려는 정치 세력의 시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좌진의 시해 장면을 다룬 다음 인용문을 보자.

기사년 선달 스무닷셋날. 양력으로는 1930년 정월 스무나흘날. 오후 2시 쯤.

장군은, 때마침 또 정미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고칠 양으로, 기계 밑에 엎드려 열중해 있을 때였다. 엎드려 있는 장군으로부터 한 50미터의 지점인 정미소의 출입구 옆에 웬 흰옷 입은 젊은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장군은 진작부터 알았으나, 마을 사람이거나 여겼을 뿐이지 별 주의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흰옷과 짚신으로 일꾼을 가장하고, 정미소의 출입구에 서있던 이자야말로, 참으로 흉측한 저들 악랄하고 철없는 좌익 소아병자의 밀사였던 것이니, 그들은 한족 연합회에 그들의 동무들이 차츰차츰 동화해 들어감을 보자, 시기와 절투를 건잡지 못하던 끝에, 드디어는 김 장군을 없이 함으로써 이 거래의 통합을 방지하려고, 이 어리석은 젊은 놈을 꼬여 보냈던 것이다.(중략)

그리고 그의 눈은 또 한 번 스스로 감겼다. 그러면서 나직한 소리로,
“동지들은... 하던 일 부디 계... 속하시오.....조... 국... 광복... 사업

25) 박창욱, 앞의 논문, 179~181면 참조.

을……”

그 한마디를 남기고는, 여러 부하들의 무릎 위에 폭삭 쓰러져 버렸다. 그 모양은 마치 큰 태산이 한정 없이 바닷물 속에 무너져 들어가는 듯하였다.

이렇게 김좌진 장군은 육신은 천지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아직도 뚜렷이 우리들의 혈관 속에 고동치고 있음을 다시금 느끼는 것이다.²⁶⁾

‘약랄하고 철없는 좌익 소아병자’, ‘시기와 질투’, ‘어리석은 젊은 놈’ 같은 수사적 표현들은 김좌진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의 전달에 충실하지 않다. 거기에는 김좌진과 다른 세력들 간의 정파적 대립, 이념적 균열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겠다는 집필자로서의 의지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김좌진이 일부 좌익 소아병자들의 밀사²⁷⁾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사실 말고는 어떤 것도 꺾이지 않은 것이다. 전후 사정으로 보아 김좌진 시해 사건에 일부 사회주의 세력이 가담한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지만, 시해 사건에 내재한 정파적 갈등 문제에 대한 해명이나 그 사건이 독립운동 진영에 내부에 초래한 다양한 정치적 함의에 대한 서술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문제점은 미당 자신의 이념적 한계보다는 전기 집필 상황의 내적 한계를 보여 준다. 전기 집필 당시 미당은 전기에 서술된 내용 그 이상의 정보나 진실에 접근할 방법도 없었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독립운동 관련 사료가 빈약한 상태였고, 전기 집필 목적이 객관적 서술이 아닌 인물의 이상화, 신화화에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 집필을 의뢰한 김두한과 특정 정파의 입장만 충족되면 그만인 상황이었다. 미당이 김좌진의 생애에

26) 『전집 19』, 217~220면.

27) 박창욱과 이성우의 연구에 의하면, 김좌진 살해사건의 진범은 조선공산당 화요파 계열의 김봉환(훗날 일제에 매수되어 전향함)과 박상실(본명 공도진)이며, 이들의 김좌진 시해 사건은 무정부주의자의 포섭을 둘러싼 노선 갈등설, 일제와의 ‘비밀 계약’설 등 그 원인을 두고 다양한 이설이 분분하다고 한다.

대한 객관적 서술보다 그것을 예찬하는 태도를 부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위 인용문의 후반부처럼 김좌진이 의연한 태도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통해 우회적으로 좌파 진영의 어리석음을 질책하고 그 죽음을 이상화하면서 전기 집필을 마무리한 것도 해방기의 정치 지형도를 떠나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4. 『이승만 박사전』의 집필 경위와 전기의 구성 방식

4.1 집필의 계기와 과정, 그 주변 상황

『김좌진 장군전』과 『이승만 박사전』의 가장 큰 차이는 집필 당시 전기 대상 인물의 생존 여부이다. 생존 인물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기 집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좌진 전기 집필은 유족 측 혹은 주변 인물들이 제공하는 자료나 회상에 의존하였고, 작가는 자료의 공백에 상상을 채워 넣었다. 이와 달리 이승만 전기는 전기 대상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나 구수에 의존하여 집필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다. 그런 까닭에 이승만 전기는 김좌진 전기에 비해 상상이나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훨씬 적었다. 이 경우 전기 작가는 자서전 대필 작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이런 특수한 집필 상황은 역설적으로 우남 이승만 전기가 김좌진 장군전과 달리 흥미 본위나 설화성을 떨쳐내고, 실화 위주의 사실성, 기록성을 지향할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승만 전기는 전대 영웅 서사류의 전기물에서 벗어나 위인전 혹은 근대적 영웅의 전기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 먼저 그가 이승만 전기를 집필하게 된 계기, 집필의 과정, 간행이 보류되고 인쇄 책자가 몰수된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① 끝으로 정해(1947년)의 다사(多事)하신 한여름과 가을을, 친히 저자에게 재료를 구수해 주신 우남 어른께 삼가 절을 올리며, 이 전기의 성립까지에 많은 힘이 되어 주신 해위 윤보선 선생과, 이 책의 발행 담당자 삼팔사 이복 주간에게도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²⁸⁾

② 나는 내 일생에서 나를 낳게 하신 내 친부 외에 두 분의 정신적 의미 아버지를 더 모시고 살아왔으니, 그 한 분은 일정 치하 때에 내 교육을 바로 이끌어 주셨던 우리 불교의 대종사 스님이었던 석전 박한영 스님이요, 또 한 분은 1947년에 내가 그의 전기의 집필자로 위촉되어 매주 두 차례씩 만나 뵈고 그 분의 생애의 이야기를 그분에게서 직접 구수받아 노트하고 있었을 때, 내게 난생처음으로 그 철전의 민족 자주독립혼을 각성시켜 주신 우남 이승만 어른 바로 그분이시다.²⁹⁾

①은 간행 직전 출간이 멈추었다는 초판의 머리말이고, ②는 집필 후 50년 가까이 지난 후에 간행된 새판의 머리말이다. ①에서 미당은 전기 집필 과정에서 우남의 ‘구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윤보선의 천거로 집필자에 선정되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②에서 미당은 우남의 ‘구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 당시 우남으로 인해 ‘철전의 민족 자주독립혼’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전기 대상 인물이 작가 자신에게 끼친 정신적 영향을 고백하고 있는 셈이다.

전기 집필의 구체적인 정황은 또 다른 산문 『이승만 박사의 걸』(『전집 7』 수록)과 『내가 본 이승만 박사』(『전집 9』 수록)에서 잘 드러난다. 이 산문들을 종합하면, 미당과 우남의 첫 만남은 1947년 여름에 이루어진 일이다. 해방 공간에서 민족주의 진영의 문학단체인 문필가협회의 추천으로 미당이 이승만 박사의 전기 집필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승만환국기념사업회’를 이끌던 윤보선이 문필가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김광

28) 『전집 19』, 223면.

29) 『전집 19』, 225면.

섭, 이헌구 같은 문인의 집필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이다.³⁰⁾ 사적인 인연 대신에 공적인 절차에 따른 집필자 선정은 이승만 전기가 해방기의 특정 정파가 지녔던 정치 프로그램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임을 잘 보여 준다.³¹⁾

이와 같이 미당의 이승만 전기 집필은 해방기 민족주의 진영의 정치적 구상과 맞물려 있었다. 그렇다면 미당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우선 이승만 전기 집필은 미당이 문인으로서 겪는 생활난을 타개하는 방책이 되었다. 하지만 생활난 그 자체를 넘는 현실적 과제가 미당 앞에 놓여 있었다. 먼저 ‘이 박사’가 ‘김구의 형님 훈수’였다는 미당의 진술³²⁾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당은 김좌진 전기의 집필 당시 김구 진영의 청년운동 단체에 가담했었다. 하지만 미당은 우남 전기의 집필을 계기로 노선을 전환하여, 현실 정치에서 김구보다 비중이 더 컸던 우남 즉 ‘20세기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제일 원로’에 연결되었다. 미당은 이것이 자신에게 ‘홍분거리’였음을 고백하고 있다. 또 다른 회고인 『이승만 박사의 곁』이란 산문은 이즈음 미당의 내면 풍경을 잘 드러내고 있다.

30) 『내가 본 이승만 박사』, 『전집 9』, 256면. 당시 윤보선은 민중일보사의 사주로서, 동 신문사 간부인 이헌구, 김광섭을 매개로 미당을 전기 집필자로 천거하였다. 김광섭은 후에 이승만의 비서관이 된다.

31) 이승만 전기에는 당시 국무총리 이범석의 ‘서사’, 국방부장관 신성모의 ‘서문’, 내무부장관 김효석의 ‘서문’, 문교부장관 안호상의 ‘서’가 들어가 있었다. 한편 해방기 더 나아가 1950년대에는 다양한 이승만 관련 서적-특히 전기-이 간행되었다. 특히 미당의 전기 간행 전후에 양우정이 엮은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1948)와 『이대통령투쟁사』(연합신문사, 1949. 8), 『이대통령건국정치이념』(연합신문사, 1949. 10)가 간행되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미당 집필의 이승만 전기는 정치적 효용성이 그 당시부터 이미 반감된 것으로 보인다. 살아있는 정치인의 이상화 작업은 1950년대로 이어져 다양한 전기 간행과 동상 건립 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역사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로는 정용욱, 『홍보, 선전, 독재자의 이미지 관리 -1950년대의 이승만 전기』, 『세계정치』 8, 2007.; 후지이다케시, 『‘이승만’이라는 표상 -이승만 이미지를 통해 본 1950년대 지배 권력의 상징 정치』, 『역사문제연구』 19, 2008 참조.

32) 『전집 9』, 257면 참조.

① 나는 물론 즉석에서 승낙하고 부산의 대학교수직을 그만두기로 했다.

‘에 그건 참 땡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고? 그야 그런 느낌도 상당히 있었지만, 나를 골라 찾아온 이 운은 이때의 내게는 ‘땡’ 그 정보보다는 훨씬 더 벽찬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수립 바로 한 해 전의, 그 초대 대통령 취임 한 해 전의 이 박사라면 그게 그 누군가? 공산당들까지도 한동안은 그들의 대통령으로 하겠다고 검은 먹글씨로 그 이름을 종이에 써 종로의 벽마닥 붙이고 다녀야 했던 이승만 박사, 해외에서 돌아온 독립운동의 거장들도 많았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도 많았지만 단연히 그들이 누구보다도 훨씬 더 빛나는 원로라고 이 민족된 이 누구나 제일 높이 우러러보던 이 박사, 신문의 제목들도 한 동안 그 이름 위에는 반드시 ‘국부’라고까지 붙여 드렸던 분— 이런 분의 생애의 이야기를 손수 이분한테서 들어 그 전기를 내가 쓰게 되었다는 것은 나한테는 더는 없을 큰 감동이 되었다. 채 가 보지 못한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을 처음으로 가 볼 기회가 생겨서 그리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 짙은 향수가 그 감동 속에서 솟어나 또 나를 이끌고 있었다.³³⁾

② 그러나 그와의 반 해쯤의 접촉은 내게는 은근히 큰 힘이 되었다. 늘 짓눌리면서도 끈질기게 뚫고 나온 민족혼의 상징을 그에게서 가까이 느끼고, 일정 말기 한때의 엉터리였던 내 오판을 대조해 보고, 다시 살 마련과 용기를 내 속에 일으키는 데에 아주 큰 힘이 되었다.³⁴⁾

①은 이승만 박사를 대면하기 직전의 미당을, ②는 전기 집필을 위해 이승만 박사와 만남을 나누던 시절의 미당을 보여 준다. 우남과의 만남은 우연

33) 『전집 7』, 190~191면.

34) 『전집 7』, 198면.

히 찾아온 행운(‘땡’) 이상의 ‘벅찬 느낌’을 주었다. 친일 경력 때문에 한껏 위축되어 있던 미당에게 삶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난 것이다. 언론과 풍문을 통해서만 우남을 접했던 미당은 이제 김좌진 전기 집필을 의뢰했던 세력들, 더 나아가 임시정부 요인들보다 훨씬 ‘빛나는 원로’이자 훗날 ‘국부’로 불리게 될 존재와의 만남을 앞두고 된 것이다. 미당은 이 만남을, 미처 가보지 못한 조부의 고향을 찾아 가는 듯한 ‘짙은 향수’와 ‘감동’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향수와 감동의 실체는 ②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우남과의 접촉은 미당에게 ‘큰 힘’을 주었다. ‘민족혼’의 상징으로 추앙받는 우남은 미당에게 오판의 소산인 친일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 살 마련과 용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큰 힘’을 주었다. 미당은 우남의 정치 노선에 맞닿음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고향’에 가닿는 느낌을 가졌던 것이다.

사실 이 느낌은 미당에게 전혀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런 느낌, 혹은 ‘큰 힘’이란 미당이 친일 행위를 선택할 당시, 천황이란 존재에게 자신을 기투하면서 보여 주었던 그 정신현상학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³⁵⁾ 미당은 근원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와 자신을 상상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일제말의 시대상황 속에서 존재론적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했다. 이 한때의 정치적 선택이 ‘오판’임이 드러난 순간, 그러니까 미당이 근원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간주했던 ‘천황’이 가짜임이 폭로된 순간, 미당은 자신을 지켜 줄 ‘근원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새롭게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³⁶⁾ 그런 점에서 우남의

35) 미당이 당대의 정치권력 혹은 인륜적 질서의 정점에 놓여 있는 절대적 존재로서 ‘천황’을 상상하고, 그것을 통해 대자아에 접속되었다고 여기는 착종된 정신 현상학은 친일시부터 비롯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남기혁, 「서정주의 동양 인식과 친일의 논리」, 『국제어문』37, 국제어문학회, 2006, 122면 참조.

36) 오성호 역시 미당의 이승만 전기 집필을 두고 ‘천황을 대신할 새로운 주군과의 만남’, ‘친일이력을 가리기 위한 정치적 상징’,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신생 대한민국의 충량한 국민이 되는 것으로써 새로운 대주체의 회귀를 단행했던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오성호, 「시인의 길과 ‘국민’의 길: 미당의 친일시에 대하여」, 『배달말』32, 배달말학회, 2003,

전기를 집필한다는 것은 김좌진 전기의 집필과는 비교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미당에게 우남은 독립운동의 최고 ‘원로’이자, 현실 정치의 측면에서 미래의 권력을 장악할 ‘거인’³⁷⁾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런 ‘거인’ 같은 존재와의 만남은 생존을 위해 민감한 촉수를 세상을 향해 들이밀었던 미당에게 커다란 기회였다. 그것은 생활의 방편이자 생존의 전략이었고, 문학적 활로를 회복하는 길이자 최고의 정치적인 이념 선택이었다. 그런 천금 같은 전기 집필의 장이 미당에게 펼쳐진 것이다.

4.2 사실 기록의 압박과 실화 중심의 서사 구성

이승만 전기의 전체적인 구성 방식은 김좌진 전기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가계와 배경’이란 부제가 붙은 서편을 제외하면, 전기 전체가 ‘소년→청년→해외 활동(전자는 ‘만주에서’라는 부제를, 후자는 ‘해외풍상’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으로 이루어지는 일대기 구성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가계와 배경’을 서편으로 제시한 이유가 중요하다. 이승만 전기의 서편은 ‘제1장 가계’와 ‘제2장 1880년경의 조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제1장은 이승만이 1924년에 창작한 한시(고향인 서울 남산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내용)와 해방 직후 창작한 한시 한 편(고향의 사당에 돌아와 사라진 옛 벗과 지나간 시간에 대한 회한을 토로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남산골 샌님’의 기질과 생활 태도를 지녔던 부친 슬하에서 어린 이승만이 태어났던 1875년경의 집안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제2장은 ‘이조의 황혼’으로 표현되는 조선의 당대 정치적 상황을 병인(1866년), 신미(1871년) 두 양요부터 병자수호조규(1876)를 거쳐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는 1879년경의 상황을 속도감 있게 서술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원군과 왕후 민씨 일파가 서로 내분을 일으켜 ‘이조의 몰락’을 재촉하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서편이 제공하는 두 가지 큰 줄기, 즉 출생 당시 우남의 미천한 가계 상황과 당대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은 이승만 전기의 사실성(事實性) 혹은 史

123~125면 참조.

37) 『전집 7』, 197면.

實性)을 떠받치는 토대가 된다. 인물의 비범한 출생을 강조하기 위해 영웅 설화의 서사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작가의 설화적 상상력까지 동원했던 김좌진 전기와 달리, 이승만 전기는 우남의 인물됨과 활동상을 객관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서술의 토대를 전기 첫머리에 마련해 둔 것이다.

이런 차이는 인물의 출생과 관련된 정보를 누구에게 전해 들었는가의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승만 전기는 출생 관련 정보를 우남 자신의 구수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우남은 자신이 몰락한 양반가에서, 즉 비록 왕족의 후예라고 하나 변변한 벼슬을 차지하지도 못해 경제적으로도 한미한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그 비루한 사실을 미당에게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승만 전기는 김좌진 전기와 달리 비범한 영웅의 실패담이 아니라, 문제적 인물의 성장 및 성공담이라는 이야기 구조를 따르도록 기획된다. 김좌진 전기가 전통적인 영웅 서사체를 따른 것과 달리, 이승만 전기가 근대적인 인물의 성장담에 부합한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과 관련이 깊다.³⁸⁾

근대적 영웅의 서사 기획은 이승만 전기가 김좌진 전기에 비해 역사적 사실(史實)의 압박을 더욱 민감하게 의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승만은 미당의 전기 집필 당시 생존 인물이었다. 또한 그런 인물이 전기의 밑바탕이 되는 내용을 구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몰락한 양반가의 자손으로서 경제적 궁핍과 가계 곤란의 상황까지 내몰렸던 유년 및 성장기의 가정환경을 사실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문제적 인물의 문제성을 부각하는 효과가 생겨나는 셈이다.

실제로 김좌진 전기에서 엿보이는 전대의 영웅 서사 방식이나 흥미 본위의 인물 묘사가 우남 전기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제1편 소년’의 ‘제1장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에서, 미당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산

38) 김좌진 전기는 비극적인 결말 구조를 취하는 점에서 전통 영웅 서사체와 구별된다. 김좌진의 경우는 가계의 출중함을 강조함으로써 독립 운동가로서의 성공과 실패가 부각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반면 이승만은 가계의 비루함을 강조함으로써 독립 운동가로서의 뛰어난 성취가 부각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천을 유람하는 우남의 부친, 그로 인해 생활 문제를 홀로 떠안아 고통을 겪었던 우남의 모친, 어린 나이에도 학문의 성취가 뛰어났던 우남의 면모, 안질에 걸렸다가 일본 의사의 도움으로 장님이 되는 것을 면했던 일화 등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한편 ‘제2장 임오군란’부터 ‘제6장 갑오년까지’ 역시 우남의 성장 과정을 좇아 당대의 급변하는 정세를 서술하고, 우남이 과거시험을 치러 벼슬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부친의 뜻과 달리 마침내 ‘거센 개화의 물결’을 좇아 과거 시험공부를 작파하고 아명인 ‘승룡’ 대신 ‘승만’이라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편 ‘제2편 청년’은 갑오경장으로 인해 과거 제도가 폐지된 시점에서, 청년기에 진입한 우남이 구학문과 결별하고 배제학당에 입학하여 신학문과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³⁹⁾, 제중원에서 서양인들과 교류를 맺는 과정, 갑신정변의 주역인 서재필의 귀국을 계기로 조직된 협성회에서 변론술을 익히고 (제5장), ‘협성’ 및 ‘매일’지의 주필로서 활동하는 과정(제6장), 협성회를 모태로 성립된 독립협회에서의 활동(제7장)과 만민공동회 활동(제8장), ‘격문사건’(제9장)과 이로 인한 감옥 생활(제10장), 감옥에서의 기독교 전도 활동(제11장) 등으로 속도감 있게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 역시 주로 우남 자신의 구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들이지만, 다음 인용문처럼 객관적인 사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서술자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허나 이렇게 부자유한 감옥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그의 일을 쉬지는 않았다. 감옥이면 감옥 그대로 거기 적합한 일거리를 찾아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 또한 그의 성미인 것이다. (중략) 그때 서울에서 발간되었던 신학월보 제1권 5호를 보면, 그가 밖으로 내보낸 자세한 옥중 서신이 다음과 같은 소개전문을 붙여 발표되었는데, 그 속엔 그의 당시의 옥중 생

39) 이승만 전기는 근대적 지식인의 면모, 특히 반봉건적 의식과 국제적인 시각을 지닌 선각자의 모습으로 이승만을 그려내고 있다. 이승만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조는 이런 근대적 지식인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되는 것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활의 모습이 물심양면으로 잘 나타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오히려 번거롭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피하고, 그 글 전문을 여기 옮겨, 직접 그의 뜻을 통해 그때의 그를 엿보기로 한다.⁴⁰⁾

미당은 해당 진술에서 자료의 출처로 ‘신학월보 제1권 5호’란 언론 자료를 직접 언급한 후, 이승만의 ‘옥중 진도’ 전문을 5 페이지에 걸쳐 장황하게 인용하고 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전기에 인용하는 빈도나 비중은 전기의 내용이 전개되면서 점차 더 커진다. 이는 김좌진 전기는 물론 이승만 전기 전반부와 비교할 때, 영웅 서사체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 방식과는 크게 대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제3편 해외풍상’은 7년의 감옥살이를 마친 우남이 미국 유학을 떠나는 과정(제1장, 제2장), 미국에서의 수학과 연설 활동(제3장), 독립 활동 혹은 외교 활동을 펼치는 과정 등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김좌진 전기의 경우처럼, 전기 대상의 생애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이 펼쳐지는 시기를 짧은 분량으로 압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반드시 패망하고 조선은 반드시 독립한다’는 신념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다는 우남의 ‘일생의 역센 경력’, 미당의 평가에 따르면 ‘현대 조선 민족의 최고 준령’의 실제 활동이 이렇게까지 압축적으로 소략하게 제시된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일이다. 심지어 제3편은 일기 혹은 비망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남의 주요 행적이나 활동상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가 최초로 미국 땅에 발을 들러놓았을 때 그는 무엇을 느끼었을까
--- 그것은 오로지 독자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나는 일찍이 한 번도 그의 입으로 이 감상을 들어 본 적이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만, 그가 샌프란시스코에 당도한 뒤부터 목적지인 워싱턴에 가기까지의 그의 수첩의 기록을 그대로 옮김으로써 여러분의 참고에 바치고자 할 따름이다.

40) 『전집 19』, 360면.

12월 6일오전 10시. 샌프란시스코 입항. 3시에 상륙. 일본 여관 오이스야에 투숙. 한방에 두사람씩 자는 방. 하루 저녁 숙박료는 50센트. 먹은 것은 10센트 이상.

12월 8일동 오클랜드 12가 477번지 안정수 씨 집으로 왔다.

12월 9일안씨와 산 라벨 614의 5번지 피시 댁에서 자다.⁴¹⁾

한편 1932년 제네바 소재의 국제연맹에서의 활동상을 다룬 제7장은 일기의 골자만 일보(日報) 형식으로 모두 8면에 걸쳐 나열하고 있고, ‘제8장 국제연맹회의’는 서술자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한 채 한 달여간의 활동상만을 나열하고 있다. 한 위대한 독립 운동가의 삶 중에서, 근대적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가장 주목할 부분들을 객관적 정보의 나열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서사의 육체나 풍부한 서술을 결여하고 있는 이런 정보 제시 방법은 전기문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거기에는 찢긴한 상황 묘사나 인물 묘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연보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는 과편화된 서술의 방식인 것이다.

다만 프란체스카와의 만남을 기록한 ‘제11장 한 편의 로맨스’은 우남의 기록(일기책)을 인용하여 미국에서의 결혼식을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이 전기 서술자의 모습을 잠시 드러내고 있다.

그는 어느 날의 여행 기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니와, 육십에 이 정열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상상 밖이어서 다만 눈을 동그랗게 뜰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를 보라. 그는 꼭 아직도 얼굴이 붉은 청년과 같이, 결혼하고 여행할 수 있지 않는가. (중략) 이 정열은 바로 30년을 한결같이 기다렸고. 또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는 똑같은 정열이요, 그에게는 모든 일에 그러할 수 있는 정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서도, 민족에 대해서도, 세

41) 『전집 19』, 377면.

계에 대해서도……

위 인용문의 진술은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전기 대상 인물에 대해 일종의 경외감을 표출하는 부분이다. 전기 대상 인물의 정치적 행보와는 무관하며,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자아낼 만한 장면만을 절취하여 인물의 ‘정열’을 과도하게 이상화·신화화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의 대미인 ‘제12장 예언과 같이’는 전기 서술의 압축 정도가 훨씬 강화된다. 육십의 나이에 결혼에 이른 노정객의 ‘정열’에 대해 서술하던 미당은 중일전쟁의 발발 가능성과 일본의 미국 침략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우남의 말을 직접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은 서술로 전기를 서둘러 끝맺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그의 예언은 분명히 적중되었다. 적중이도 바로 그 과녁의 한가운데를 가서 맞혔던 것이다. 틀림없이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미국의 해군 근거지 진주만을 폭격하였고,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그전 그를 비웃었던 미국의 정객들은 비로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의 예언에 감탄하였다. 그들은 말하였다.

“저 한국 사람 이승만에게는 참으로 묘한 데가 있다.”

“이 늙은이에게는 마치 저 신약의 선지자의 눈과 비슷한 눈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일본은 반드시 패망하고 조선은 반드시 독립한다’는 신념의 눈이 없고서야 어찌 그의 70년이 하루 같을 수 있겠는가.

1945년, 제2차 세계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승만—그의 일생의 소원대로 패망하자, 그는 한 승리자로서 우리 앞에 나타났음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그의 승리는 참으로 조선 말엽 이후 1945년 을유 해방에 이르도록까지의 이 나라의 모든 승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의 일생의 역센 경력은 능해 현대 조선 민족의 최고 준령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⁴²⁾

인용문은 2차 대전의 발발을 예언했다는 점을 들어 우남의 비범함을 부각하는 대목이다. 이런 예언이 실제 있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 예언에 대한 미국 조야의 반응, 진주만 습격 이후 미국 정객들의 반응 역시 실제 사료에 근거한 진술이기보다 우남 자신의 구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일 개연성이 높다. 특히 우남의 예언 적중을 미국 정책의 말을 빌리는 형식으로 ‘신약의 선지자’에 빗대는 모습⁴³⁾은 다소 희극적이기까지 하다. 이어서 전기 서술자가 “그렇다”와 외치며 우남을 예찬하는 모습, 우남에게 “이 나라 모든 승리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장면, “조선 민족의 최고 준령”이라고 선언하는 장면들은 아무리 전기 대상이 되는 인물의 위인됨, 영웅됨을 부각하려는 수사적인 장치라고 해도 전기의 신뢰성을 상당 부분 해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인물의 이상화 과정에서 동원된 수사적 장치가 기독교 신앙에 맞닿은 점도 주목된다. 미당의 진술에 따르면, ‘신약의 선지자’라는 비유는 기독교 신앙이 해방기에서 우남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었음을 환기한다. 동시에 그 비유는 우남을 온 민족이 우러르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존재로 부각하려는 것이자 민족이라는 숭고한 이념의 화신으로서 우남을 이상화하여 상이한 가치 평가의 시선을 차단하려는 수사적 전략의 소산일 것이다.⁴⁴⁾

미당이 이와 같은 서사 진행 방식과 수사적 장치를 활용하여 전기의 후반부를 압축적으로 서술한 까닭은 무엇인가? 미당이 우남을 만나 구수를 받던 1947년 후반의 시기는 단독 정부 수립을 앞둔 급격한 정세 변화의 시기였다. 전기 후반부에 담길 내용에 대한 구수가 충분히 이루어질 만한 시간적 여유

42) 『전집 19』, 444~445면.

43) 이 예언은 이승만이 집필한 『일본내막기』(영문명 Japan Inside Out, 1941)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대해서는 이주영, 『이승만과 그의 시대』, 기파랑, 2011, 76-77면 참조.

44) 이런 기독교적 수사학은 미당의 표현이 아니라 구수의 주체인 우남의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1950년대에 간행되는 이승만 전기들에서 기독교적 수사는 더욱 노골화되어 ‘이승만=하느님이 내려 보내신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신격화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지이 다케시, 앞의 논문, 36면 참조.

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미당은 우남의 실제 활동상을 구체적인 일화를 들어 상세하게 서술할 만큼 충분한 구술이나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며, 특히 1948년에 접어들어 정국이 급박해지면서 우남을 만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우남의 비망록(일기)만을 바탕으로 서둘러 전기를 완성해야 했던 것이다.⁴⁵⁾ 미당 개인의 입장에서든 전기 집필 당시 그 스스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다. 1948년경의 미당 역시 문학인으로서의 각종 활동 외에도 동아일보 입사와 퇴사, 문교부 예술과정 부임 등으로 인해 전기 집필에 전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결국 이승만 전기는 전기 구성의 완결성을 형식적 차원에서만 충족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축급한 방식으로 결말을 맺었다. 그 과정에서 미당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서술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남이 제공한 일기(비망록)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서술 방식은, 생존 인물 대상의 전기가 통상 그러하듯이 인물이 스스로 남겨놓은 기록과 이 인물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서술자의 시각 이외의 여타의 가치 평가적 시선을 철저히 배제 혹은 은폐한다. 독립 운동 과정에서의 우남의 실제 행적에 대해서는 수많은 평가가 엇갈리고 있거니와, 미당은 우남이 제공하는 기록에 한정하여 몇몇 특징적인 대목을 일보 형식으로 열거하는 데 그쳤다. 이런 기록 방식은 일면 객관적인 서술방식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물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거나 특정한 관점에서 조망하고 비판할 가능성을 차단한다. 심지어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이승만에게 제기되었던 슬한 의혹들, 즉 임정의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었던 일이나 독립운동 자금 유용과 관련된 의혹, 재미 교포 사회 내에서의 반목 양상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하고 그 정보를 드러내지 않은 것은 미당이 집필한 이승만 전기의 결정적인 한계가 아닐 수 없다.⁴⁶⁾

45) 『전집 7』, 198면.

46) 미당의 이승만 전기는 3·1운동 직후의 행적에 대해 “1921년 여름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자, 승만은 이내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주미 한국위원회장으로서 독립운동을 계속 추진시키는 한편, 1922년부터는 하와이에 교육사업협회를 조직하고 외지에서 커 나가는 이 나라 제2세 국민들의 교육을 지도하며, 다시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409

무릇 전기에서 위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우남의 전기 집필 당시 그는 생존 인물이었고, 그것도 현실 정치에서 권력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로서 집권의 가능성도 누구보다 컸다. 이런 인물의 삶과 행적을 소개하는 전기 집필은 당대의 정치적 지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전기 집필과 간행, 그리고 간행 취소의 경위⁴⁷⁾ 그 자체가 모두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연결된 것이다.

5. 맺음말: 전기문 쓰기에 함축된 정치적 의미

김좌진과 이승만에 대한 미당의 전기 집필은 그의 전 생애에 걸친 글쓰기 여정에서 돌발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미당 문학의 근거에 자리 잡고 있는 서사의 충동, 즉 실제에 바탕을 둔 것이든 순전한 허구를 지향한 것이든 이야기 만들기에 대한 지향성이 낳은 서사적 결과물이다. 그런 만큼 전기 집필에 나타난 서사의 충동은 전기 집필자의 실존적인 동기를 떠나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부끄러운 친일의 경력을 지니고 있던, 그래서 해방기의 정치적 현실 속에 자신의 친일 행위가 초래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조바심을 내던 미당은 김좌

면)라고만 약속하고 있다.

- 47) 미당의 문필 활동에서 상호텍스트성 문제는 주목할 만하다. 자작시를 해설하는 경우, 산문으로 쓴 내용을 시로 재창작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살아온 삶에 대한 회상을 시와 산문으로 함께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전기 간행이 무산된 사실에 대해서도 미당은 산문과 시로 함께 기록하고 있다. 시 『이승만 박사의 곁에서』(전집 3권, 310면)는 “그러신데, 이 정분으로 그의 전기를 써냈더니,/그의 아버지 이름 밑에 존칭을 안 붙였다고/대통령된 이 양반이 발매 금지를 시켜 버려서/그 뒤 여러 해를 나를 서럽게 한 건/꽤 오래 두고두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갔네.”라고 기록하고 있다. 부친 이름 밑에 존칭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할 것이다. 이승만이 이미 “대통령된” 마당이고, 불완전하게 기술된 전기의 간행과 발매는 정치적 차원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한편 또 다른 시 『이승만 박사와 함께』(『전집 4』, 256~260면)에서는 저간의 사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진과 이승만의 전기 집필을 일종의 탈출구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당대의 유력 정치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기 집필로 얻게 될 생활의 방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다. 김좌진 전기는 당대의 우익 정치세력 김두환의 기획에 의한 것이었고, 이승만 전기 역시 윤보선을 비롯한 당대 우익 정치인들과 문필가 협회의 공식적인 정치적 기획의 소산이었다. 이미 당대 정치 현실에서 반공 노선의 문학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던 미당은 이들 세력과 연결되어 반민족 행위를 은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실제로 전기 집필은 미당이 친일 경력으로 인해 자칫 끊길 수 있었던 민족이란 상상의 공동체와 재결속을 이루어냄으로써 끝내 정치적 단죄와 고립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한편 미당이 집필한 두 전기는 구성과 문체 등에서 몇 가지 상이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인물의 생애를 일대기식으로 엮는 통사적인 전기의 틀을 비교적 충실하게 지켜낸 점에서 두 전기문은 유사하다. 하지만 전대 영웅소설의 구성이나 문체를 상당 부분 따르고 있는 김좌진 전기와 달리, 이승만 전기는 우리 근대사의 문제적 인물인 이승만에 대한 위인전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김좌진 전기의 경우, 가족과 주변 인물의 구수와 당대 신문의 보도에 근거하되 작가적 상상력을 개입하여 인물의 비범함을 강조하고 서사의 흥미를 고려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이승만 전기의 경우, 생존인물인 이승만 자신의 구술과 개인 자료에 바탕을 둔 까닭에, 한 문제적 개인이 구한말의 정치적 혼란기에 근대적 지식인으로, 또 독립운동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비교적 사실 중심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농후했다. 다만 전기 대상인 이승만의 구수 및 비망록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독립되고 완결된 서술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내용의 신뢰도에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특히 전기 후반부가 서사의 육체를 갖추지 못한 채 사실 열거 수준의 파행적인 진술로 일관한 점은 이승만 전기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단독정부 수립 전후의 정치적 급변 상황에서 서둘러 전기 집필을 마무리해야 했고, 전기 대상 그 자체가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상황에서 미당은 전기 작가로서 서사적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거나 상상력을 동원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가

능했다고 볼 수 있다.

김좌진과 이승만이라는 영웅을 대상으로 전기를 쓴다는 것. 그것은 격동의 해방기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 전기 집필 그 자체가 특정 정치 세력과 연계된 일종의 정치적 프로젝트였을 뿐만 아니라, 미당 입장에서는 우익 문단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물론 미당이 숭고한 이념인 민족(주의)에 접합되는 체험은 그다지 수미일관한 것만은 아니었다. 친일의 자의식을 떨쳐내야 한다는 강박에도 불구하고, 또 반공의 전사로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일말의 불안과 공포가 사로잡혀 있었다. 한국 전쟁 전후에 미당이 보여준 분열증적 증세는 그가 속하고 싶었던 민족의 정체성, 더 나아가 반공 이념의 정체성이 그리 견고한 것은 아니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미당의 전기 집필은 친일 행위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에 토대 위에 구축된 것이 아니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의 전기 집필은 글쓰기의 윤리 자체는 물론 정치적 이데올로기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 사유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곳에서 어떤 윤리적 포즈를 읽어 내거나 공동체적 사유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가 민족이나 국가를 말할 때, 그 중심은 실제로는 텅 비어있다. 일제 말기나 해방기는 물론 전쟁 이후의 시기까지 민족과 국가라는 공동체는 그의 문학적 관심사가 결코 아니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언제나 자기보존의 욕망이었고, 민족이나 국가라는 공동체는 자기보존의 욕망을 분식하는 허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문학적 자아는 특정한 역사 공동체에서 타자로서 스스로를 상상하거나, 혹은 타자들의 연대로써 공동체적 현실에 대결하는 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그는 자기보존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이념적 정당성 혹은 논리적 일관성을 따지지 않고 주어진 현실을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체념과 순응, 달관과 초탈로 특징지어지는 그의 문학적 지향성은 타자성의 계기가 사라진 자기보존의 충동, 공동체 없는 공동체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닐 수 없다. 훗날 신라정신이라는 공허한 이념으로 질주했던 미당의 문학적 행적 역시 이런 맥락과 관련이 깊다.

김좌진과 이승만 전기를 향해 달려가던 해방기 미당의 글쓰기 욕망은 이런 어두운 그림자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미당은 스스로의 정치적 지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위인이 내뿜는 숭고한 이념에 편승한 채, 중심이 부재하는 해방기의 현실을 가로질러 갔다. 그것은 현실 정치가 순수한 이념을 대신하고, 처연한 생존의 논리가 윤리적 당위나 실천을 압살하는 시대의 논리에 스스로를 내맡김으로써 자기보존의 욕망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일 뿐이다. 미당의 이런 맨얼굴은 그의 해방기(와 그 이후)의 시적 실천을 뮤즈의 노래 대신 간교한 역사 논리로 읽어내야 할 당위성을 우리에게 부과한다.

참 고 문 헌

1. 일차 자료

-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3』, 은행나무, 2015.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4』, 은행나무, 2015.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7』, 은행나무, 2017.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9』, 은행나무, 2017.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19』, 은행나무, 2017.
서정주, 「일정 말기와 나의 친일시」, 『신동아』, 1992. 4.

2. 논문 및 저서

- 김재용,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으로서의 친일문학」, 『실천문학』66, 2002.
남기혁, 「서정주의 동양 인식과 친일의 논리」, 『국제어문』37, 2006
남기혁, 「해방기 시에 나타난 윤리의식과 국가의 문제」, 『어문론총』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박창욱, 「김좌진 장군의 신화를 켤다」, 『역사비평』24, 역사비평사, 1994.
오성호, 「시인의 길과 ‘국민’의 길: 미당의 친일시에 대하여」, 『배달말』32, 배달말학회, 2003
이성우, 『만주 항일무장투쟁의 신화-김좌진』, 역사공간, 2011.
이주영, 『이승만과 그의 시대』, 기파랑, 2011
인보길 엮음, 『이승만 다시보기』, 기파랑, 2011.
정용욱, 「홍보, 선전, 독재자의 이미지 관리 -1950년대의 이승만 전기」, 『세계정치』 8, 2007.
후지이 다케시, 「‘이승만’이라는 표상」, 『역사문제연구』 19, 2008.
허윤희, 「해방 이후의 서정주 1945~1950」, 『민족문학사연구』36, 2008.

【Abstracts】

Seo Jeong-ju's Writing and the Political Desire of the Liberation Period.

—focused on "Biography of General Kim Jwa-jin" and "Biography of Dr.
Lee Seung-man"

Nam, Kihyeog

In this paper, I tried to identify the political unconsciousness reflected in Midang Seo Jeong-ju's "Biography of General Kim Jwa-jin" and "Biography of Dr. Lee Seung-man." Midang's writing biographies came from the impulse to the narrative, but it is impossible to explain it apart from his own existential motives. I focused on the Midang's anxiety due to his pro-Japanese career. He wrote two biographies to find a way out of this anxiety. Specifically, "Biography of General Kim Jwa-jin" is for the political position of his son, Kim Doo-han, and "Biography of Dr. Lee Seung-man." is the result of a political project to consolidate his political position by the idolization.

Midang, who chose anti-Communist ideology and nationalism in the midst of the liberation period, wanted to be reunited with the imagined community by writing these biographies and sought to escape from the crisis of political isolation and condemnation.

These two biographies differ in several respects. First of all, "Biography of Kim Jwa-jin" has many elements of amusement because Midang followed the composition and style of a previous hero novel.

However, "Biography of Dr. Lee Seung-man" has a tendency to emphasize the modern character of Lee. The former is based on the retrospection of family members and people around him, and on the newspaper reports. So, the writer's imagination was likely to be involved in his writing. However, the later, based on the surviving character's oral retrospection and personal records such as diary, tended to describe the story based on objective facts, excluding the writer's imagination.

Midang's biographical writing itself was a political project linked to specific political forces. From Midang's standpoint, this was a decisive moment to become an influential figure in the literary circles. However, his experience of joining the nation was not so consistent. Despite his obsession to shake off the self-consciousness of pro-Japanese career and his pride as an anti-Communist, he has always been seized with anxiety and fear. The auditory hallucinosis of the Midang during the Korean War shows that his identity as a nationalist and a anti-communist ideology was not so solid.

Key Words: Midang Seo Jeong-ju, the Liberation Period, "Biography of General Kim Jwa-jin", "Biography of Dr. Lee Seung-man", Biography, political desire

이 논문은 2019년 02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3월 1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3월 2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